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b>Main</b>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RESEARCH SUMMARY

###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 리뷰



의평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팀은 금번 뉴스레터에서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를 리뷰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연구 리뷰 전문보기](#) →

## People

- 학생의 관점에서 본 의학교육 평가인증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대학 학생대표 3인 인터뷰 -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ASK2026(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 Trends new

- Learn Serve Lead 2023: AAMC Annual Meeting 참석 후기



## News

- 의학교육 평가인증
- 대외협력
- 사무국
- 의평원 연구활동



## Event& Notice

- 향후 회의·행사 일정
-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안내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PEOPLE

### 학생의 관점에서 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2023년에는 8개 의과대학이 평가인증 방문평가를 받았다. 의평원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인터뷰가 가능한 3개 대학의 학생대표를 만나 '학생의 관점에서 본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Q1.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주관하는 의평원에서는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별도로 학생들의 자체평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보고서 작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학생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학생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실제 느끼고 경험하는 학교생활, 교육과정, 시설과 자원 등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작성하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는 학교의 단점을 거의 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보고서는 문항 개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학교의 간섭없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처 보지 못한 학교의 단점까지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만들어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서 다루면 되지 굳이 바쁜 학생들에게 자체평가를 하게 하고 학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조사하고 평가한다면 학생들은 대답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솔직한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덜고 학교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Q2. 학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되거나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학생보고서는 조사 문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ASK2019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의 사정에 맞게 학생들이 설문 문항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보고서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일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항을 개발하려고 학교를 조사하는 노력이 어려웠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보고서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직접 강의실에 찾아가서 학생보고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객관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관식을 쓰게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심한 말을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건설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문장을 순화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주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 질문 경우에도 고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이 학교평가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통계분석을 어떻게 하고 결과를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조차도 학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를 학생들끼리 충분히 논의한 후 보고서에 기술하였습니다.

### Q3. 학생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의평원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A. 학생보고서 작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4~5월 경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은 7월 15일이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보고서에 대한 중요성과 작성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험 있는 학교의 사례를 직접 들 수 있었던 점, 어떤 통계분석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리엔테이션이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수업 부담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었지만, 이러한 점을 의평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보고서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 Q4. 학생대표로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소감은?

A.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는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이번 학생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학교의 실정을 인지하고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게 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자신이 학교로부터 받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 학생보고서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 참여가 평가인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인터뷰 장면

- 인터뷰어: (좌상단) 이도형 학생(울산의대 의학과 2학년)  
(좌하단) 이은지 학생(아주의대 의학과 2학년)  
(우하단) 임정훈 학생(고신의대 의학과 2학년)
- 인터뷰어: (우상단)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채수진 팀장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RESEARCH SUMMARY

###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 리뷰

기획위원회 연구개발팀

의학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전문인증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도하에 '제1주기(2000년~2004년)', '제2주기(2007년~2011년)', 'Post-2주기(2012년~2018년)'를 거쳐 현재는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ASK2019는 이전 기준과 달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을 근간으로 마련되어 의학교육의 국제적 표준화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평가인증이 교육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향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실제적 가치를 고찰하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인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정상에 문제는 없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의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로 알려져 있는 메타평가(Meta-evaluation)는 평가의 과정과 결과의 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검토를 의미하며, 기존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평가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개발 연구'를 토대로 post-2주기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대한 메타평가를 2차례 거치면서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평가의 영역과 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발전해 왔다.

2019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2022년까지 국내 4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한 차례 이상 수행되었다. 따라서, 그간 진행된 ASK2019 평가인증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향후 수행하게 될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SK2019 평가인증 과정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평가인증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질향상위원회(위원장: 서울의대 이승희 교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함께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시각뿐만 아니라 피평가대학에서 보는 시각과 전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회 전문가의 시각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평가자, 피평가대학, 직원 등)의 인식을 조사하고,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ASK2019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평가자, 피평가대학, 직원 등)의 인식을 조사한다.
- 둘째, 평가인증프로그램 과정평가(CIPP 모형)를 통해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안한다.

##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양적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질적자료를 병행하여 분석한 혼합적 접근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 1.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식 조사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관련된 교수, 자체평가위원, 방문평가단, 대학 행정지원인력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396명(자체평가위원 169명, 방문평가위원 28명, 일반교수 91명, 대학 행정직원 108명)이 참여하였다.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자체평가위원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의학교육평가위원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 직원이 높게 평가했다. 평가인증 기준의 적절성은 자체평가위원과 방문평가위원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우수기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기준의 명료성과 의학교육 현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위원은 어렵다고 봤으나 방문평가위원과 행정 담당 직원은 실현 가능하다고 나타났다. 평가인증 과정은 대체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식되었지만,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평가의 인력과 비용에 대해 자체평가위원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방문평가위원은 인력은 적절하나 비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 2. 의학교육 평가인증 참여 경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피평가대학 자체평가위원, 평가자인 방문평가위원, 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담당자,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하였고, 총 53명(자체평가위원 40명, 방문평가단 7명, 사무국 직원 3명, 의과대학 학생 3명)이 참여하여 4-6명 소그룹 형식으로 집중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하였다.

자체평가위원들은 평가인증을 의과대학의 질 개선 필수 과정으로 보았으나, 준비 과정은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수들은 평가인증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느꼈고, 각 대학의 준비 과정에 편차가 있었는데, 의학교육 전문가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방문평가위원들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과 평가 기준의 숙지를 중요시하였으며, 평등한 의사소통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가인증 결과와 방문평가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직원들은 방문평가의 일정 조율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질적인 평가인력 확보와 피평가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질적인 평가인력 풀을 확보하여야 하고, 피평가대학 실무자 교육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문평가, 중간평가 등 평가인증 전문성을 위한 개선 의견과 사무국 인력, 인프라, 직원의 역량과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으며, 방문평가단의 학생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만족했다. 그러나 학생보고서 작성 시 데이터 통계 처리, 학생 의견 반영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설문 참여 및 보고서 작성 특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3. 의학교육 평가인증프로그램 과정평가 (CIPP 모형)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평가에 필요한 문헌자료, 설문조사,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IPP 평가준거와 지표에 따라 세부사항을 평가하고 평가인증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진들의 회의를 통해 상호 검토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의 검증과 논의를 거쳐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CIPP 모형의 유형과 각 단계별 목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황(Context, 평가인증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목표와 성과를 도출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평가): 피평가대학의 현재 상황과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인증에 대한 요구 조사가 필요하며, 개별 피평가대학의 현황과 실정을 진단하고, 평가인증 항목별 기준을 피평가대학의 특성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의 구체적 목표와 목적을 더 확실하게 공유하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 주관의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
- 투입(Input, 필요한 자원, 시간, 경비, 기존 평가인증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구되는 목적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평가): 이해관계자들은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 개편, 그리고 기준의 명료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인증 설명회와 워크숍에서의 질의응답과 사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인력 확충과 교육이 필요하며, 평가위원들은 전문성 강화와 이해도 차이 해소를 위한 학습을 요구했다.
- 과정(Process, 평가인증이 계획된 바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방문평가위원과 피평가대학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하며, 개선계획서 작성과 이의 제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개선계획서 작성 시 피평가대학의 소수의 담당 교수에게 물리는 경향이 있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는데 다양한 제약 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피평가대학에서는 이의 제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제기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했다.
- 산출(Product, 평가인증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평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는 피평가대학들이 개선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제공이 필요하며, 평가판정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 피평가대학은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 계획서 및 중간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려 했지만, 이 사항들이 필수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인인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개선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의학교육평가원과 방문평가단은 평가결과와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평가대학들은 판정 과정과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오해와 의문이 있음을 확인했다

###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응 분석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은 '4A Meta Evaluation Model'을 도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인식(Awareness), 태도(Attitudes), 행동(Action), 변화(Alteration) 4가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 1단계 인식(Awareness): 이해관계자들은 평가인증이 의학교육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었으나, 평가 기준의 명확성 부재로 혼란을 느꼈다. 평가와 관련된 업무 부담과 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사무국 직원들은 업무 부담에 따른 피로감을 경험했다.
- 2단계 태도(Attitude):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인증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피평가대학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기준과 가이드의 애매함에 어려움을 느꼈다. 학생 중 일부는 적극 참여했지만, 다른 일부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의학교육평가원 이해관계자들은 헌신적이었으나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 3단계 행동(Action): 이해관계자들 중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가인증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소극적이었다. 자체평가위원과 행정 담당 직원은

업무 부담에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학생들은 설문조사와 데이터 정리에 참여했으나, 고학년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 4단계 변화(Alteration): 이해관계자들은 평가인증 기준의 개선, 명료한 표현, 효과적인 평가위원 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가인증 설명회의 확대, 방문평가의 의사소통 개선, 결과의 공개 개선, 그리고 평가인증 결과의 신뢰성 강화가 요구되었다.

## 종합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통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 1. 기준, 제도, 유지보수에 대한 제언

- 평가인증 기준: 기준의 명료화, 특정 용어와 표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내 의과대학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 도입이 필요하며, 우수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다.
- 평가인증 제도: 평가인증 설명회에서는 교수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며, 방문평가단 풀 구성에 있어서는 초기 평가단 참여자를 ‘참관자’로 역할을 제안하는 등 양적 및 질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방문평가단의 사전 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가 지원되어야 한다. 서면평가 시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수적이며, 방문평가 시 평가자의 태도에 대한 교육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 최종평가의 등급화 판정 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선계획서 작성에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중간평가에서는 평가 자료의 전산화와 정량적 데이터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 평가인증 유지보수: 전국 의과대학 내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할 방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직원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가 인력 확충, 업무 분장 및 학회 참석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 2. 3개 기관을 위한 제언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평가인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증 주기 및 기준에 대한 피평가대학 의견을 논의하고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학 간 자료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및 경험 인력 풀 공유가 필요하며 기준 항목 조정과 평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정평가로서의 중간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 한국 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평가인증아카데미(가칭)을 설치 운영하여 의학교육평가인증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한 평가인증 연구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인증 기준 이해도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설명회 및 워크숍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 3. 의사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연구 결과, 의학교육의 투명성, 질 향상, 그리고 국제적 표준 연계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 양성과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 전략의 필요성, 의학교육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 국제 의학교육 표준과의 연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확립, 그리고 지속적인 메타평가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연구기간: 2022. 7. 1. ~ 2023. 3. 31.
- 연구책임자: 이승희 교수(서울의대)
- 공동연구기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 연구발주기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좌측의 연구보고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연구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ASK2026(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 이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ASK2026(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2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적용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ASK2026(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26)'이라고 명명하고 지난 2023년 11월 10일과 12월 1일 각각 제1차, 제2차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ASK2019'는 2025년도까지만 활용하고, 2026년도부터는 'ASK2026'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인증기준위원회는 ASK2019 평가인증 결과를 환류하고 변화된 의학교육 환경을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15차례에 걸친 회의와 집중작업을 실시하여 기준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발표한 2020년도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ASK2019와 매칭하여 변화를 점검하였으며, ASK2019 기본기준, 우수기준의 평가 결과 및 ASK2019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 결과 검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ASK2019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준 수'입니다. 평가영역도 9개에서 8개로, 평가부문도 36개에서 28개로 줄었지만, 기본기준 92개, 우수기준 51개, 총 143개였던 기준이 기본기준 71개, 우수기준 15개, 총 86개로 확 줄었습니다.

평가영역·부문별 기준 수 -ASK2019와 비교

ASK2019				ASK2026(안)					
평가영역	부문 수	평가인증기준 수		평가영역	부문 수	평가인증 기준 수			
		기본	우수			기본	우수	합계	
1.사명과 성과	4	8	3	11	1.사명과 가치	2	4	-	4
2.교육과정	8	18	9	27	2.교육과정	6	14	3	17
3.학생평가	2	8	3	11	3.학생평가	2	6	-	6
4.학생	4	10	6	16	4.학생	3	8	2	10
5.교수	2	12	2	14	5.교수	2	10	2	12
6.교육자원	6	18	9	27	6.교육자원	5	13	1	14
7.교육평가	4	6	3	9	7.교육평가와 질 향상	3	5	4	9
8.대학운영체제와 행정	5	9	5	14	8.대학운영체제와 행정	5	11	3	14
9.지속적 개선	1	3	11	14					
합계	36	92	51	143	합계	28	71	15	86

ASK2026(안)의 구조와 구성은 ASK2019와 동일합니다. 기준,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 평가 가이드, [주]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본기준은 K, 우수기준은 H로

## 25 임상학과술기

**기법** K.2.5.4 의과대학은 다양한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사태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

가이드-1. 1,2차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가이드-2.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가이드	핵심어	가이드	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임상실습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차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li> <li>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실습지명서</li> <li>임상실습 편성표</li> </ul>

**[참고]**

- 자유선택 임상실습 기법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의평원은 ASK2026(안) 제1차 공청회를 통해 개정 기준을 소개하였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공청회에서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차, 제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집과 ASK2026(안) 전문은 의평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료집에는 ASK2019와의 평가영역, 부문, 기준 수 대표표, 기준별 신규대표표 등이 수록되어 있어, ASK2019와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K2026(안) 공청회 자료집 보러가기



▲ 제1차, 제2차 공청회

2026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시행되는 ASK2026의 최종본은 2024년 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이 때 우수기준의 평가인증 활용 수준과 같은 정책적인 사항도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b>Trends</b>	→
News	→
Event	→
Notice	→

## TRENDS

### Learn Serve Lead 2023: AAMC Annual Meeting 참석 후기

기획위원회 전략기획팀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기획위원회 박송이입니다. 8월부터 국외연수로 미국 LA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AAMC(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2023년 연례 회의가 가까운 Seattle에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려 다녀와 소식을 전해봅니다. AAMC는 미국 내 의과대학, 교육 병원, 학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학 교육, 의료 서비스, 의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의과대학 협회' 정도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 공식 학회장 Seattle Convention Center

AAMC의 연례 회의는 이름 그대로 학회(conference)보다는 모임(meeting)에 더 가까웠습니다. 155개의 미국 의과대학들이 모여 각 학교의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석자 모두에게 허용된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그 수만큼 사전 확인된 참석자만 입장 가능한 각 지역의 의과대학 모임(alumni reception)부터 및 다양한 위원회(committee) 회의도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침 6:30분부터 시작되어 저녁 6시 30분까지 뻘뻘하게 진행되었는데, 의과대학들이 1년치 회의를 5일 동안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Learn Serve Lead가 올해 모임의 주제인지 알았습니다.

‘배우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끌자’ 정도로 혼자 해석하고는 ‘모임의 주제 치고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Learn Serve Lead’는 AAMC의 핵심 가치이자 미션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프로그램 구성은 여느 국제 학회처럼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미국 의과대학들의 고민을 담고 있는 무척 현실적인 주제들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 지역에 어떻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Answering America’s Call: Successful Strategies for Rural Physician Workforce Development (11월 6일 1:15 PM ~ 2:30 PM)과 미국의 총기 사고 논의에 이제는 의과대학도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A Public Health Crisis: Gun Violence and How Academic Medicine Can Make a Difference (11월 4일, 1:15 PM~2:30 PM)는 정말 현장에서 출발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학생 평가와 의사 면허 시험은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Transition to Pass/Fail Scoring for Medical Licensure Exams: A Collaborative Research Agenda (11월 4일 10:30 AM~11:45 AM)과, Pass-Fail in Clerkships: Too Soon, Too Late, or Just Right? (11월 6일, 10:30 AM~11:45 AM) 등의 Pass/Fail 관련 주제는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어 복도에 앉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쉬는 시간을 넘겨 서까지 거침없는 질문을 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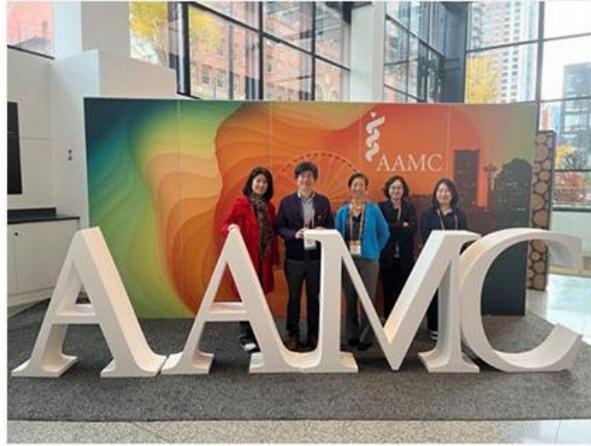
▲ 질문을 하기 위한 줄이 길어 늘랐고, 너무 솔직하게 성토하는 모습에 또 놀랐습니다.

역시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번에 first generation medical student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의과대학 학생을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한 의과대학 학생의 설문조사 포스터를 보니, first generation medical student들은 전체 의과대학 정원의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진로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도 분명 first generation medical student가 있을 텐데, 도대체 미국은 이런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의과대학의 인증 평가를 담당하는 한 교수님과 대화에서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학생 선발에 민감해 점점 많은 의과대학들이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등장하게 된 용어였던 것입니다. 의과대학 인증 평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AAMC는 첫 참석이라 제 눈에는 많은 것들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사람 사는 곳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느곳에서나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땅도 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의과대학도 많아서 그런지 고민거리가 우리보다 10배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미국 의과대학의 현재 고민들이 결국 우리 나라가 아직 고민이라 부르지 않는 것들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들이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미국 의과대학의 한국계 교수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첫 참석자를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NEWS

### 의학교육 평가인증

####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학은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8개 대학으로, 현재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의평원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금),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판정하였고, 이후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평가결과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추후 공시될 예정이다.

※ 2023년도 평가인증 결과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의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경과

일정	내용
2023. 1. 16.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 안내
2023. 1. 16. ~ 2. 28.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2023. 3. 1. ~ 7. 31.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 수행
2023. 3. 24.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2023. 5. 13.	학생보고서 설명회 개최
2023. 7. 31.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 접수
2023. 8. 18.	방문평가단 구성 및 워크숍 개최
2023. 8. ~ 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2023. 9. 4. ~ 11. 3.	방문평가
2023. 11.	방문평가 후속 절차

2023. 12.	평가보고서 검토
2023. 12. 22.	판정위원회 판정
2023. 12. 27.	결과 안내 및 평가보고서 발송
2024. 1.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예정)

### ● 2023년도 중간평가

2023년도 중간평가대상 대학은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연세, 제주, 충남, 충북 등 9개 대학이며, 현재 의평원은 중간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하였다. 중간평가는 의평원에 접수된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인증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든 대학을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 2023년도 중간평가 경과

일정	내용
2023. 1. 16.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대상 안내
2023. 1. 16. ~ 2. 28.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신청서 접수
2023. 3. 1. ~ 8. 31.	대학별 중간평가 연구 수행
2023. 3. 24.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2023. 8. 31.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접수
2023. 9. 1. ~ 11. 15.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인증관리위원회)
2023. 11. 17. ~ 11. 18.	중간평가를 위한 인증관리위원회 집중작업
2023. 12. 7.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안) 검토
2023. 12. 11.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안) 제출
2023. 12. 12.	중간평가 결과 심의(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
2023. 12. 13.	중간평가 결과 안내 및 중간평가 평가 결과보고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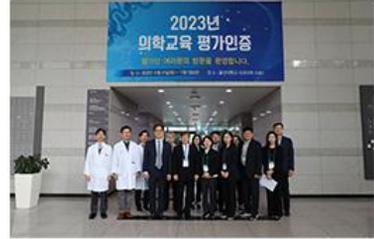
### ● 2023년도 방문평가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를 위해 5개 방문평가단을 구성하고,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방문평가는 평가대상 대학별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대학	평가단	평가일정
계명	제3평가단	2023. 9. 12.(화)~15.(금)
고신	제5평가단	2023. 10. 30.(월)~11. 2.(목)
순천향	제1평가단	2023. 10. 24.(화)~27.(금)

아주	제2평가단	2023. 10. 17.(화)~20.(금)
연세원주	제2평가단	2023. 9. 4.(월)~7.(목)
영남	제1평가단	2023. 10. 17.(화)~20.(금)
울산	제3평가단	2023. 10. 31.(화)~11. 3.(금)
조선	제4평가단	2023. 9. 19.(화)~22.(금)

### 방문평가 현장스케치



### ● 2023년도 방문평가 후 영역별 회의 개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23년도 방문평가를 마치고, 2023년 11월 8일(수) 14:00, 충무아트센터 예그린스페이스에서 영역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영역별 회의에서는 각 평가단 영역별 방문평가위원이 모여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별 판단 결과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 2023년도 제2차 방문평가단 단장 회의 개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23년 11월 10일(금) 10:00, 서울역 공간모아 10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방문평가단 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문평가단 단장 회의에서는 5개 방문평가단 단장이 모두 참석하여 영역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단별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편차를 조율하여 최종 확정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 2023년도 평가보고서 리뷰어 회의 개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평가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방문평가단과는 별도의 리뷰어를 구성하여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금) 10:00, 의평원 회의실에서 2023년도 평가보고서 리뷰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리뷰어별로 담당한 평가보고서의 리뷰 결과를 공유하였고, 평가보고서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 ○ 2023년도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 개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8개 대학의 결과 판정을 위해 2023년 12월 22일(금) 14:00, 서울역 공향철도 AREX B3-10 회의실에서 2023년도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판정위원회는 의료계 대표뿐만

아니라 교육계, 법조계, 학생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대외협력

### ○ 2023년 제2차 의평원-의대협회 간담회

2023년 제2차 의평원-의대협회 간담회가 2023년 12월 20일(수) 18:00, 경북공역 고래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 및 평가인증 관련 현안 공유 및 상호 협력 방안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 사무국

### ○ ASK2026(안) 제1, 2차 공청회 개최



의평원은 2026년도 평가인증부터 적용할 예정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개정기준 ASK2026(안)의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ASK2026(안) 제1차 공청회는 2023년 11월 10일(금) 16:00, 서울역 공간모아 6층 강의실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 관계자, 평가인증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인증기준위원회에서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의 개정 개요, 각 영역별 개정 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11월 17일(금)까지 추가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수렴한 후, 2023년 12월 1일(금) 15: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 관계자, 평가인증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SK2026(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인증기준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반영한 ASK2026(안)을 발표하였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확정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ASK2026은 2024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 제7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 의평원 기관주관 워크숍 개최



의평원은 제7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 기간 중 2023년 12월 9일(토) 13:30,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소 1층 105호에서 '학생평가 영역 기준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기관주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평원



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성균관의대 전경만 교수(기획위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워크숍은 컨퍼런스 등록자 중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북의대 유효현 교수(인증기준위원)의 'ASK2019 학생평가 영역 체크포인트', 동국의대 황지영 교수(인증제도위원장)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렌즈를 통해 보는 의과대학 학생평가의 현주소'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학생평가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개선노력에 대한 토의를 위해 전남의대 정은경, 울산의대 채수진 교수(기획위원)가 그룹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수석부원장 겸 기획위원장)가 '의과대학 학생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다.

## 의평원 연구활동

### ● 2023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보장과 평가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3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1) 의학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역량 강화, 2) 평가인증 전산화 구축 기초작업, 3) 국제교류 및 평가인증 홍보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평원은 2023년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유석 평생교육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30일(목) 11:00, 온라인 회의실에서 연구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과제

의평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과제로 '특수·전문의료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은배 수석부원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 무궁화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 2023년도 의평원 내부 정책연구과제

의평원은 2023년도 의평원 내부 정책연구과제로 '캐나다 역량바탕 수련프로그램 및 졸업후교육 평가인증 시스템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인터뷰' 연구를 선정하였고, 김영민 졸업후교육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유형 및 기간 기획 연구'를 2023년도 의평원 내부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였고, 최용준 기획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기획위원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b>Event</b>	→
Notice	→

## EVENT

### 회의 소식

#### ● 제7-004차 실행위원회, 제33차 정기 이사회 개최 예정

의평원은 제7-004차 실행위원회와 제33차 정기 이사회를 2024년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 회무 및 재무사항, 2023년 결산(안) 및 2024년 예산(안), 사업계획(안) 보고 및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 행사 소식

#### ●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예정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와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통합하여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을 2024년 3월 29일(금), 서울역 공간모아 8층 강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평가인증·중간평가 관련 기본 안내와 더불어 당해연도 평가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기준 관련 분임토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vol.60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Trends	→
News	→
Event	→
Notice	→

## NOTICE

### ●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실시 예정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평원은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2024년 1월 중 평가인증 신청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평가인증 대상 대학	중간평가 대상 대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울지대학교 의과대학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상 총 8개 대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 총 15개 대학)